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1/12월호
2016년



Aspen trees near Santa Fe Ski Area Photo by K S Shin

김치축제에 교민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김영신
뉴멕시코한인회장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높은 하늘과 맑고 쾌청한 날씨가 가을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교민 여러분들과 함께 김치 축제라는 이름 아래 축제와 교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치 축제는 미주류 사회에 한인 커뮤니티를 소개하기 가장 좋은 기회이고 더불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행사보다 우리 한인들의 관심과 후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김치 축제를 위한 준비사항이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군데의 local channel(KOB, KOAT, & KRQE)에 김치 페스티벌을 알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Alibi weekly 신문과 아리조나 타임즈에도 광고해서 10월 26일과 10월 29일에 실립니다. 또한,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에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Tent를

2016년 11/12월호 내용

- 한인회소식 | 김치축제에 초청합니다 | 김영신 : 1
- 한인회소식 | 초청에 감사 합니다 | 스티브 피어스 : 2
- 한인회소식 | 총영사 동포 간담회 : 3
- 한국학교소식 | 한국학교소식드립니다 | 박영신 : 4
- 한인사회소식 | 어버이회소식 | 윤태자 / 코원소식 | 박광종 : 5
- 한인회소식 | 순회영사업무/추석만찬제공 : 6
- 한인사회소식 | 법률세미나/Magnificent Seven 상영 : 7
- 수필 | 가을-단풍 | 이정길 : 8
- 인터뷰 | NM School of Music의 서유경 선생 : 9
- 기고문 |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의미 | 이명길 : 10
- 지역사회소식 | 주택가격상승세/페이스북 데이터 센터 : 11
- 한인사회소식 | Yelp 선정 뉴멕시코 베스트 "아시안페어" : 12
- 생활상식 | 허망한 욕심 | 김준호 : 13
- 생활상식 | 심장마비의 전조증상 | 이태길 : 14
- 성경공부시리즈 | 에베소서 개요 | 현용규 : 15
- 설교말씀 | 노아의 때와 같이 | 한승우 : 16
- 에세이 | Overcoming Adversity | Jenny Lee : 17

예약했습니다.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연도 준비하고 있고요. 판매하고 시식할 다양한 음식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후원의 손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후원의 손길도 전해지고 있음도 감사드리고요. 올해의 준비 지출 예산 금액은 작년의 \$2,500보다 더 많은 \$3,500으로 증액했습니다. 행사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고 음식도 마감 시간 전에 동나고 했습니다. 행사당일 한국학교에서는 떡볶이 실습 및 판매(small plate \$5)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좋은 안건이 있으신 분들은 서슴치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더 나은 행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늘 열린 귀로 교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 변창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며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는 김치 축제 행사에 가족과 친지 특히 외국인 지인들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김치 축제 행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치축제 초청에 감사합니다

뉴멕시코 하원위원 **스티브 피어스**



Thank you for inviting me today to share in your celebration of the 9th Annual Kimchi Festival! This fantastic event not only honors and celebrates Korean culture in New Mexico, but helps introduce more members of our community to a new part of the world.

Growing up from humble beginnings in a small town near Hobbs, I never thought I would hav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t was not until I was drafted to serve in Vietnam that I was given a glimpse into life outside New Mexico. And once I was able to experienc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other nations, I was hooked. I was immediately convinced that in order to better my perspective on life here in the United States, I needed to engage with other people, their culture and way of life.

In my time learning about your heritage and spirit, I've come to understand that our cultures are not that different. They are similarly built on the principles of faith, respect for the past, honor for our heritage, love of family, and making certain the generations to come have a better life than we were given. These similarities shared by such different nations have inspired me to encourage people of all ages and walks of life to seek out these new experiences, peoples, and cultures. Such experiences will redefine y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This event today brings to life vibrancy of the Korean culture to the people of New Mexico, many of whom may not get to experience it firsthand. Though I am unable to join all of you in celebrating the Kimchi Festival this year, I encourage all visitors to not let this celebration end today, but to spread awareness throughout their communities about the vibrant Korean culture.

Sincerely,
Steve Pearce
Member of Congress ■

총영사 동포 간담회



지난 10월 19일, 이기철 총영사와 이창수 동포담당 영사가 앨버커키를 방문해 동포간담회가 열렸다. 스시하마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는 2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인으로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앨버커키 주민들의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 및 문의사항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김영신 회장의 소개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이기철 총영사는 취임 당시 약속한 네 가지 공약을 소개했다.

첫째, 문턱 낮은 총영사관이 되겠다는 것이다. 총영사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이곳에 일하는 직원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곳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영사관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이 총영사는 동포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 최근 한인 신문 및 뉴스를 직접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민원실이 가장 문제임을 파악하여 현재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민원실에는 '맞춤형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지' 그리고 모든 상황을 녹음, 녹화하는 CCTV를 설치했다고 한다. 맞춤형 서비스란 총영사관에 도착하면, 대기선에서 민원담당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 및 관련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기시간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현재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 대기시간이 월등히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둘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총영사관이 되겠다는 것이다. 총영사관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는 총영사관이 되겠다고 했다. 특히, LA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인 '영사관 ID'는

17일부터 LA총영사관이 관할하는 4개주, 네바다 주, 뉴멕시코 주, 애리조나 주, 캘리포니아 주의 DMV에서 한인 서류 미비자(합법적 체류기간 만료자)라도 이 ID와 여권을 함께 제출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영사관 ID를 발급받으려면,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와 현재 유효한 여권 원본 또는 사본, 거주지 증명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셋째, 한국을 알리는 총영사관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 총영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임을 강조하며, 이런 자랑스러운 일들을 미국에 알리는 것은 물론, 현재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 차세대 우리 동포들에게도 알려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총영사는 네덜란드 대사로 근무할 당시, 유럽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교과서에 한국 알리기 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국정교과서에 단 2줄만 기재되었던 한국을 6페이지에 걸쳐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을 알리고 특히 한국이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임을 소개하는 쾌거를 이루었음을 소개하며 이런 사업을 미국에서도 꾸준히, 적극적으로 펼쳐 한국인의 위상을 알릴 것이라 했다.

넷째, 동포사회와 함께 가는 총영사관이 되겠다고 했다. 위에 세가지는 동포사회의 협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면 이 총영사는 네덜란드에서 교과서 사업을 진행할 때 도움을 주셨던 동포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고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포사회의 많은 협조와 소통을 부탁했다. 또한 이를 통해 점점 나아지는 동포 사회를 다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이번 방문은 이기철 총영사가 취임 후, 첫 방문으로 이 총영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9회에 합격해 외교관이 된 후, 리비아 1등 서기관, 유엔대표부 1등 서기관, 이스라엘 참사관, 재외동포 영사국 조약국장과 법률국장, 네덜란드 대사관 역임하면서 외교부장관 표창, 근정포장, 제1회 올해의 외교인상, 대한민국공무원상 등을 수여 받았다. ■

한국학교 소식

한국학교 소식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교 교장, 박영신입니다.

저희 뉴멕시코 한국학교에서는 가을학기 시작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매주 다양한 특별활동을 3교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 만들기’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지에 교감선생님의 지도아래,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떡을 동그랗게 빚어 그 속에 설탕과 깨로 만든 고명을 채운 후 깨끗하게 손질한 솔잎 위에 떡들을 가지런히 올려 직접 찌보는 체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수업이 어땠냐는 질문에 한서희(6)양은 “한국 할머니 댁에서 먹어봤던 송편을 직접 만들어보니 무척 재미있었다며, 특히 동그란 반죽을 만두같이 꼬집어 만드는 것이 인상 깊었고 소나무 생각이 났다”고 답했고 한준희(6)군 “콩모양으로 만들어 내가 만든 것을 직접 먹으니 더 맛있었다”며 즐거워해 모든 선생님들에게 보람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 활동 시간에는 토요일 성인반 학생들에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의 전통 방식의 떡 만들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느껴 볼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고 이 수업을 위해 정지에 교감선생님께서 미리 반죽과 고명을 준비해 주시고 모든 비용은 한인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월에는 앨버커키의 자랑인 ‘열기구 축제’로 온 도시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학교에서는 이를 특별활동과 연결 지어, 민속놀이의 하나인 딱지로 만드는 열기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열기구 축제에 다녀온 아이들에게 소감을 묻고 답하여 여러 가지 재료와 용어를 한국어로 배운 후, 색종이로 딱지를 접는 방법을 천천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어린 친구들도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스스로 딱지를 만들어 기뻐했고 아이들이 일인 당 18개의 딱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딱지들을 모아서 동그랗게 풍선모양으로 연결한 후, 실을 두 갈래로 연결하여 열기구를 완성했고 아이들이 무척 뿌듯해하였습니다. 계획은 아이들이 만든 열기구를 한국학교에서 11월까지 장식으로 사용할

박영신

뉴멕시코한국학교
교장

예정이었으나 아이들의 성화에 모두가 집으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글로 만드는 머리핀’, ‘직접 만들어 먹는 김밥교실’ 등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한국학교에 오는 것을 무척 즐거워한다는 인사를 학부모님들께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더 많은 것들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은 한국학교의 선생님들만의 노력이 아닌, 한인회의 전적인 후원과 믿음,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한국학교를 통하여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희망차게 자라길 기대하며 아무쪼록 한국학교에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



어버이회 소식

윤태자
뉴멕시코 어버이회
회장



안녕 하세요.

어버이회의 윤태자입니다. 덩다고 아우성 부릴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새벽에는 이불을 톱밀까지 끌어 당기는 쌀쌀한 날씨가 되었고 낙옆이 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10월 26일 샌디아 산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유회를 갖는데 cotton wood tree가 노랗게 황금색으로 물들었더군요. 2016년이 어느사이에 끝나 갑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도와주신 개인이나 단체들로 인하여 어버이회가 순조로운 항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가끔 의견차이나 오해로 회원간에 갈등이 있을때도 있으나 슬기롭게 해결하시는 모습들 그역시 한국인의 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이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젊은 차세대가 활기차게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살아 가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7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분들과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부터 정미라,김영신, 최영애, 정풍자, 박연복, 신광순, 김경숙, 명 폴린스, 문상귀, 감순옥, 신 리사, 박영숙, 양재숙, 에이원 마켓, 김스 마켓, 주님의 교회, 감리교회, 스시하마, 천주교 공동체, 코윈에서 후원하시거나 봉사해 주셨습니다. 물질로 기부하신 분은 김경숙, 최진, 최영애, 김현지, 최재훈, 조규자, 이수신, 김철, 이성희, 최미나, 신광순, 조은순, 김길자씨입니다. 그외에도 필요한 물품들을 김태원씨, 김현지씨가 보내 주셨고 김미경, 명 폴린스,이희정, 박용숙, 애나씨, 윤진옥씨가 손길이 필요할때 항상 도와 주셨습니다. 쓰다보니 참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처럼 무턱대고 어버이회를 끌고가는 저를 도와 주셨고 어버이회를 도와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희생과 봉사가 더 커다란 화합으로 나타나 알버커키에 사는 한인들의 사랑의 공동체로 어버이회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젊은 사람들의 봉사를 기대하면서 이글을 마칩니다. ■



코윈 소식입니다.

박광종
뉴멕시코KOWIN
지회장



코윈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뉴멕시코 지회는 지난 10월 8일12시에서 4시까지UNM Student Union Building, LOBO A &B 에서 제 1회 뉴멕시코 코윈의 컬리지 앤 커리어 페어(college and career fair)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른 컬리지 앤 커리지 페어와는 다르게 지역사회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과 중,고등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멘토링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뉴멕시코 테크(New Mexico Tech) 대학과 하이랜즈대학(New Mexico Highlands University), 국가연구소, Honeywell, UNM 병원, 회계회사, 은행 등에서 의사, 엔지니어, 약사, 교수, 회계사, 은행원 등 11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차세대들의 대학진학과 진로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뉴멕시코 대학교 관련 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대학교과 진로상담의 기회도 가졌다. 코윈 장학금 신청자는 한국인으로 향후 어떻게 지역사회와 글로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와 한국인으로서의 경험과 계획에 대해 300자 이내로 자기소개서 방식의 글짓기를 제출하였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이 에세이를 제출하였고 최우수 상에는 이철수, 박선희 씨의 딸 이제니 양이, 우수상에는 박인균, 박해숙씨의 딸 박진 양이, 김두만, 김옥선 씨의 아들 다니엘 김 군이, 장려상에는 최성원, 이동미 씨의 딸인 최혜린 양과 문상귀, 문영란 씨의 딸 문단비 양이 수상하였습니다. 최우수상에는 500불의 장학금이 전해졌고,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200불, 장려상 2명에게는 각각 100불이 전해졌습니다.

각분야의 전문인들과의 상담과 멘토링, 대학교 진학문제와 전공결정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참석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음식도 많이 남고 너무 아쉬웠던

자리였습니다. 행사를 위해 이혜심 미서부담당관님과 엘에이에서 이복순님이 와 주셔서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한인들이 많지 않고 코원 뉴멕시코지회가 생긴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 미비한 단계이지만 꾸준한 활동을 통해 의미있는 일에 많은 여성이 참여할 때를 기다리며 회원 전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 문화, 건강 등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고, 하반기에는 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 of New Mexico에서 타지역에서 온 환자들 가족을 위해 저녁봉사를 할 계획에 있으며 뉴멕시코에 있는 여성단체들, 특히 피난민 여성과 노숙자,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 여성들을 위한 단체, Global pathways for Women works with refugee families와 Crossroads for women 기금 마련을 위한 김치 바자회, 차 바자회와 핸드백 바자회를 계획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코원 뉴멕시코 지회는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

순회영사업무 실시

뉴멕시코주 한인회(회장 김영신)는 9월 29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올해 두 번째 순회 영사업무를 실시했다. 이날 순회 영사업무는 이숙자 행정직원과 이항률 행정직원이 담당했다. 한인회에서는 김영신 회장을 비롯해 낸시 수석부회장과 임원들이 서류작성을 도왔다. 강케티 씨는 서류작성 시 복사가 필요한 교민들을 위해 무료 복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회장과 부회장은 새로운 얼굴의 한인을 맞이하며 한인회 가입을 원하는 분을 돕기도 하고 한인회 가입을 독려했다.

이창수 영사는 영사 업무를 보는 동안 교민들과 여러 가지 상담을 했다. 재외 선거관 윤재수 영사는 재외국민선거 관련 홍보를 담당했다. 이번 순회 영사 업무도 4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진행되었다. 모두 30여 명의 한인이 한인회관을 찾았고 그중 23명이 영사업무를 마쳤다.

이 날 처리한 영사업무는 총 46건이었다. 10건의 여권 업무, 위임장 10건, 재외 국민 등록 및 등본 발급 2건, 가족관계 증명서 4건, 국적상실 이탈신고 5건, 병역허가 1건, 기타 상담 14건이 처리되었다. 영사 업무를 마치고 비행장으로 떠나기 전 이숙자 행정직원은 김진화 씨와 임낸시 부회장이 준비한 점심에 대해 “뉴멕시코 특산물인 그린 칠리는 감동이었고 함께 온 이들이 모두 맛있

한인회 추석 만찬제공

뉴멕시코주 한인회에서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버이회 모임과 함께 추석 만찬을 가졌다.

김영신 한인회장은 특별히 한인회 전직 회장과 뉴멕시코 교역자들을 초대해 풍성한 음식과 함께 덕담을 나눴다.

봉사자들은 하루 전에 나와서 추석맞이 음식을 준비했다.

김영신 한인회장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뉴멕시코주 교민들이 올 한 해도 풍성한 결실을 보길 기원한다. 추석 잔치를 위해 봉사해 주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11월 초에 있을 김치 축제에도 교민들의 성원을 바란다”고 인사했다. ■



게 들었다. LA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맛을 보여주고 싶어 포장까지 해 간다. 또 한가지 메뉴였던 배춧국은 LA에 있는 어느 유명한 음식점에서도 맛보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영사업무에 앞서 28일 오후 6시 30분에는 재외국민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윤재수 영사가 한인회 임원과 지역 단체장을 사무라이 식당으로 초대해 내년에 있을 재외국민선거에 관해 설명했다. 윤재수 영사는 최근 들어 유권자 등록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며 많은 유권자 등록을 독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래 사진 설명:(왼쪽 부터) 윤재수영사(재외선거담당) 김영신 한인회장, 강케티님(복사담당), 암낸시 부회장, 이숙자님(행정직원), 이창수영사(동포담당), 이항률님(행정직원) ■



한인사회소식

한인을 위한 법률 세미나개최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법률 세미나가 10월 1일 (토) 오후 2시 알버키 연합감리교회 친교실에서 사회봉사부(부장:이철수 권사) 주최로 열렸다. 김기천 목사의 기도와 이경화 장로의 강사 소개에 이어 세미나가 시작됐다. 강사는 산타페에 있는 Cuddy & McCarthy, LLP의 노영준 변호사였다.

세미나의 주제는 ‘뉴멕시코 한인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법률문제’였다.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됐고 영문자료를 별도로 배포했다. 강의를 맡은 노 변호사는 지난 수년 동안 이곳 지역사회에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뉴멕시코 한인이 꼭 알았으면 하는 10가지 법률문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각각의 제목마다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나갔다.

- (1) 경찰 및 법원에서 대응방법 (Law Enforcement/Court)
- (2) 보험 (Insurance)
- (3) 사기 (Fraud)
- (4) 가정법률 (Family Law)
- (5) 상속 관련 유언장 및 서류작성 (Estate Planning)
- (6) 불법 이민문제 (Documented or Undocumented citizen)
- (7) 최저임금 지급 및 관련 서류작성 (Minimum wage)
- (8) 종업원과 고용주 관계 (Employees and Employer)
- (9) 임대계약서 문제(Landlord Tenant Contract)
- (10) 모든 문제는 문서화(Everything in Writing)

참석한 이들은 “언어문제로 인한 불이익과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많은 한인이 고통당했던 사실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1시간 30분간의 세미나를 마친 후 개인별로 법률문제를 45분 정도 추가로 상담했다. 세미나에는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노영준 변호사는 2005년 University of Wyoming 법무 대학원을 수석 졸업한 후 2008년 산타페에 있는 커디 앤 메카디 종합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2015년 미국 법률 협회 (American Inns of Court)가 매년 뽑은 우수한 변호사 한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는 산드라 데이 오커너 상 (Sandra Day O'Connor: 전 미국 연방 대법원장)을 연방 대법원에서 받았다. 노 변호사는 알버키 연합감리교회 고문 변호사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강사에게 질문이 있으면 E-Mail 주소: jroh@cuddymccarthy.com이나 로펌 홈페이지www.cuddymccarthy.com을 이용하면 된다. ■



뉴멕시코에서 촬영한 “Magnificent Seven” 절찬 상영

뉴멕시코에서 촬영했고 한국인 이병헌 배우가 등장하는 서부영화 ‘매그니피센트 7’(Mag-

nificent Seven)이 9월 23일 개봉했다. ‘멋진 7인’, ‘훌륭한 7인’, ‘장한 일곱 사람’ 등으로 번역할 수 있



는데 한국에서는 원어 그대로인 ‘매그니피센트 7’이란 제목으로 개봉했다.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그니피센트 7’은 개봉 첫 주, 9월 23~25일 전미 3,674 개관에서 3,500만 달러 수입을 올려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고 했다. 해외 수익 중에서는 한국에서의 수익이 2백만 달러 이상으로 가장 많은데 이유는 9월 빠른 9월 14일에 개봉했기 때문이다. 빠른 개봉의 이유는 주연급 캐리커로 출연한 한국 배우 이병헌 때문이다. 한국 박스오피스에서 개봉 보름째를 맞은 누적 관객수는 91만 명이 조금 넘는다. 개봉 4일차인 26일까지 전세계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 영화는 안톤 후쿠아 감독, 닉 피츨라토와 리처드 웍 각본의 영화로, 1954년 일본 영화 ‘7인의 사무라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1960년 영화 ‘황야의 7인’의 영화를 재영화화한 (Remake) 작품이다. ‘황야의 7인’에 나오는 캐스팅으로 1960년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스타 배우인 울 브리너를 비롯해 스티브 맥퀸, 찰스 브론슨 등 백인 일색이었던 캐스팅과는 달리 안톤 후쿠아 감독은 실제 서부 개척시대에 다양한 인종이 미국에 모여들었던 것에 착안하여 덴젤 워싱턴(Denzel Washington), 크리스 프랫(Chris Pratt), 이병헌(Byung-hun Lee)을 비롯해 멕시코 태생의 마누엘 가르시아 룰포(Manuel Garcia-Rulfo), 원주민 부족 출신 마틴 센스메이어(Martin Sensmeier) 등 다양한 인종의 배우들을 캐스팅해 서부영화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을 더했다.

촬영은 2015년 3월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에서 찍기 시작했고 작년 9월부터는 뉴멕시코주 산타페 근처에서 촬영했다. 작년 8월 말경 뉴멕시코 필름오피스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뉴멕시코에서 약 275명의 인력을 촬영팀에 고용하고 9명의 배우와 60명의 뉴멕시코의 백그라운드 배우가 영화에 동원될 계획이라고 했었다.

뉴멕시코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 야심작인 이 서부 영화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자금 역시 만만치 않은 9천만 달러의 거액이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제작사인 MGM 측에서는 최근에 만든 ‘벤허’ 영화에서의 손실을 ‘매그니피센트 7’으로 만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 이 영화는 알버키, 로스 루나스, 리오란초, 산타페의 여러 극장에서도 9월 23일부터 상영하고 있다. ■

가을 - 단풍

가을만큼 계절감을 절감하게 해주는 철도 없다. 싱싱하던 진초록 이파리들이 색깔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오곡백과가 산과 들을 풍성하게 장식한다. 황색이나 적색으로 물든 잎들은 때가 되면 떨어진다. 영어에는 가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autumn은 문어여서 주로 글에서 쓰이고, 본디 떨어진다는 뜻을 가진 동사fall이 명사가 되어 말에서 쓰인다. 후자는 가을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 한 가지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단어다.

상록수를 제외한 모든 나무들은 가을이면 단풍이 든다. 잎이 모두 붉은색이나 노란색 꽃으로 변하는 가을은 또 하나의 봄이다. 산이 많은 우리 나라는 이때 대자연이 선사하는 가을의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가득찬다. 9월 하순이면 설악산과 오대산에서 시작되는 단풍은 약 한 달 걸리는 남쪽 여행을 마친 뒤 한라산에서 끝난다. 첫 단풍이나 단풍 절정 시기의 예상 분포도를 만들어 알려주는 나라는 아마 우리 나라 뿐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단풍놀이를 간다. 산행을 좋아하던 나는 가을을 마음껏 즐겼다. 무더운 여름을 보낸 다음의 소슬한 가을 바람이 좋기도 했지만, 조물주가 아니면 엄두도 못낼 찬란한 단풍의 빛깔에 사로잡히고는 하던 것이다. 한 달이면 끝나버리는 잔치라 행여 놓칠세라 제백사하고 찾아 나섰으며, 안 가본 곳이 없게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설악산 신흥사 주변의 샛빨갳던 단풍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단풍이 들면 마치 붉은 치마를 두른듯하다는 무주 적상산의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깎아지른 암벽이며 절도 보았건만, 지금 내 머리 속에는 무릎까지 빠지는 갯가지 색 낙엽을 밟으면서 하산하던 기억밖에 없다. 우리 나라의 최고라는 내장사 단풍을 보는 날은 백양사 단풍까지 보는 날이었다. 매표소에서 절 입구까지, 유난히 붉은색을 띠는 단풍나무 터널을 한 시간이나 걷는다. 신선봉으로 올라 능선을 타는 동안 내려다보이는 또 다른 단풍을 즐기다가 백학봉에 다달으면 백양사 일대 계곡의 단풍이 한눈에 들어온다. 절에서 매표소까지는 애기단풍 길이다. 산행이 아니면 보기 어려운 맛, 꼬박 하루를 단풍 속에서 산다.

지리산의 단풍 구경에는 여러 날이 걸린다. 뱀사골 단풍은 오통소를 지나 간장소까지 천천히 올라가면서 보고, 내려오면서 다시 보면 좋다. 지리산 단풍의 절정은 피아골 단풍이다. 화엄사에서 시작하여 노고단에 올랐다가 피아골로 내려오는 길에 있던 삼홍소(三紅沼). 온 산이 붉고, 붉은 산이 계곡물에 비쳐 물도 붉고, 거기 서면 사람의 얼굴도 붉어진다고 해서 붉은 이름이다. 물 속에 가라앉은 단풍잎의 산뜻한 다홍빛은 더 없이 아름다웠지만, 내 눈에는 어쩐지 애처롭게 보였다.

풍광이 뛰어나 '호남의 금강산' 이라고도 불리는 강천산은 가끔은 혼자서도 찾던 산이었다. 담양호 아래서 걷기 시작하여 순창 강천사에 이르기까지, 산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계곡의 단풍은 내장산 단풍에 못지 않다. 자연이 주는 단풍 맛을 호젓하게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은 곡성 태안사였다. 쇠락한 절이라 사람의 왕래가 뜸하던 때, 절 못 미쳐 긴 단풍숲길이 온통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아내와 내 차지였다.

사계가 뚜렷한 곳에 살면서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미국 서남부의 불모지 뉴멕시코의 가을은 세이지브러시가 장식한다. 국화와 축죽의 나무가 가을이면 일제히 샛노란 꽃을 피운다. 내가 사는 앨버커키에서 동남쪽으로 60여 킬로미터 지점에는 '독립기념일 계곡' 이 있고, 거기에는 단풍나무가 하늘을 가린다. 갈라진 잎의 끝이 유달리 넓은 록키산 단풍이 현란한 색깔을 과시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록키산맥에서도 높은 곳에서 자라는 북미사시나무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잎이 흔들린다고 해서 '벌벌 떠는 아스펜' 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가을이면 달갈쫄의 샛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내는 천상의 소리를 듣고 싶어 콜로라도 주를 여행한다.



상그라데크리스토산의 단풍(Trembling Aspen) 사진:신광순

가을에는 미묘하고 투명한 청색으로 하늘이 더 푸른빛을 띤다. 청명한 가을날 산책길에서 푸른 하늘을 인 붉은 단풍잎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사방이 단풍나무 뿐인 숲에 들어서서는, 주위의 아름다움이 내 몸에 배어들었으면 싶어 가던 길을 멈추고 주저앉는다. 잎들은 바람 한 점 없어도 하나둘 저절로 떨어진다. 단풍과 낙엽이 없는 가을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잎들이 다 떨어진 뒤면 적막감이 소리없이 찾아들어 사람들을 감상에 젖게 만든다. 가을의 현혹에는 통렬함이 들어있고, 찬란함 뒤에는 조락도 있어서다.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 대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그 빛나는 장관에는 분명 깊은 뜻이 담겼을 것이다. 뒤에 올 겨울의 쓸쓸함을 미리 보상하는 것일까? 좋고 귀한 것도 놓아버릴 줄 알라는 암시일까? 아니면, 그렇게 크면서 덧없이 가버리는 눈부신 아름다움에도 가슴을 쥐어뜯는 슬픔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차리라는 것일까? ■

인터뷰

New Mexico School of Music의 서유경 선생

어린이들에게 피아노, 바요린, 첼로, 목관악기와 성악등 여러가지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학원으로 “New Mexico School of Music (NMSM)”이 있다. 2005년에 세워진 학교로 역사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학생수 500명을 넘는 큰 성장을 지난 10년간 이루어 앨버커키에서는 제일 큰 음악학원이 되었다. 피아노 선생이 16명, 성악 선생이 8명, 현악기 계통의 선생이 11명, 목관악기 선생이 6명, 기타 선생이 4명, 그밖에 음악이론과 작곡, 타악기, 아코디온, 유치부 음악지도등을 위한 선생이 7명으로 교사진 규모도 대단하다. 이 음악학원은 앨버커키의 중심지역에 사는 학생을 위해 센트럴가(Central Ave)와 워싱턴가 근처에 Washington School이 있고 북쪽 지역에 사는 학생을 위해 환타보가 (Juan Tabo St.)와 몽고메리블루버드 근처에 Montgomery School이 있다. Washington School이 규모가 커서 본교라 할수 있고Montgomery School은 조금 작은 분교라 할수있다. 이 학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교사로 피아노와 성악을 맡고 계신 서유경(You-Kyung Seo)선생이 Montgomery School에서 가르치고 있다. 서선생과의 인터뷰를 위해 학원을 찾아 들어서니 리셉션 데스크에 있던 Lily Hornbrook 비서가 밝은 얼굴로 맞아준다. 데스크위의 놓인 화분의 꽃이 화사하고 벽에는 학원이 받은 상패와 학생들이 공연한 음악회 포스터가 부쳐져 있었다. 안내 해주는 대로 교실을 둘러보았다. 교실마다 피아노가 한대 또는 두대씩 자리 잡고 있고 제일 큰 방은 어린이들의 교실로 드럼과 각종 타악기등 여러가지 악기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Lily Hornbrook비서는 서유경선생이 아주 재주꾼 선생이라고 설명을 해준다. 학생이 두가지 악기를 배우는 경우는 많아도 선생님이 두가지를 가르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레이첼 선생은 피아노와 성악 두가지를 가르치기만 하는게 아니라 작곡도 하는 선생이라고 한다. 서유경 선생의 미국성함은 레이첼 서(Rachel Seo)이다. 아래는 서유경선생과의 인터뷰 일문 일답이다.

〈질문〉 음악을 전공하게 된 내력을 얘기해 줄수있나요?

〈답〉초등학교 1학년때 어머니를 졸라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5학년이 되었을때 성악에 재미를 부쳐 성악을 시작했고 선화예술 중, 고를 졸업하고 중앙대학 음대에 입학 성악전공을 했다. 부전공을 피아노를 해서 성악과 피아노 두가지를 다 하게 되었다. 피아노에서는 솔로 보다 반주를 부전공으로 했다. 반주는 솔로와 달리 지휘자와 합창단원과 함께 하는 음악이어서 음악적 감각을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솔로 못지 않게 어려운 분야이다.

〈질문〉 미국에 오게된 배경과 가족은?

〈답〉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뉴욕주에 있는 시러큐스대학교 (Syracuse University)에 유학을 오게되어 1996년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남편 (황철민 박사)이 컴퓨터사이언스의 박사과정을 마친후 시카고로 직장을 옮겨 그곳에서 1년 살았고 다음 이곳 회사에 직장을 옮겨 뉴멕시코로 오게 되었다. 아들 황수호는 La

Cueva 고등학교10학년생이고 첼로를 NMSM에서 배우고 있으며 미술을 좋아해서 박영숙 화가(Park Fine Art 갤러리)로부터 그림도 배웠다. 미주 중앙일보의 미술대회에 출품한 그의 Komerican이란 제목의 그림이佳作로 뽑히기도 했다.

〈질문〉학원 음악선생으로 일하게 된 동기? 경력은?

이 학원 원장은 소련계 미국인 Tatiano Vetrinsaya이시다. 그의 음악교육방침이 마음에 들어서 교사요청에 응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르치고 있다. 현재 가르치는 학생은20명인데 그중 10명은 성악(Voice)을 배우는 학생이고 다른 10명은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다. 연령대는 한살 아이에서 16살까지 폭이 넓다. 한때는 72세의 할머니도 가르친적이 있다. 요즘 세대의 어린이 부모님들은 어린이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참으로 열심히다. 미국 어린이가 대다수이고 아시안계 어린이는 소수이지만 아시안계 학생중에는 우수한 학생이 많은 편이다.

〈질문〉교회에서는 집사님이셨고 봉사를 많이 해 오신것으로 아는데 교회생활에 대해서 몇마디...

〈답〉우리 가족은 호프만타운(Hoffmantown) 교회를 나가고 있다. 아들에게 첼로를 가르친 것은 첼로로 인해서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게 하려는 바람이 있어서였다. 아들 수호는 호프만타운 교회 오케스트라에서 매주 첼로를 연주한다.

나는 고등학교때 결심하기를 나의 작은 음악적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드리기 위해 공부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했고 일생동안 유치부터 지금까지 성가대를 떠나 살아본적이 없다. 교회봉사를 얘기하자면 시라큐스에서 살때 그곳 장로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10년했고 시카고에서 1년은 성가대 솔로이스트로, 이곳 앨버커키로와서 갈릴리 장로교회에서는 4년간 성가대 지휘를 했다. 주님의 교회에서 문화의 밤 행사에 어린이 합창을 지도한일도 있다.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예배중에 발표해 보일려고 준비중이다. 피아노 반주자로서의 교회 봉사도 해왔다. 최근에는 감리교회에서 수요일예배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고 주일 본예배 및 성가대 반주자로도 봉사했다.

〈질문〉 취미생활은? 삶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은?

골프를 가끔 즐긴다. 요즘에 와서는 첼로를 배우기 시작 했다. 합창과 첼로가 함께 연주할때 듣기가 참 좋은것 같다. 내가 가르치는 어린이들을 보면 음악적 재능이 향상되면서 더 기쁨을 맛보며 더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볼때 가르치는 보람을 느낀다. 음악을 통해서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수 있게 되는것에서 음악을 하는 보람을 느낀다. ■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의미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마사추세스주 플리머스(Plymouth)에 1620년 상륙한 청교도 분리주의자들인 순례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순례자란 주로 종교적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을 일컬었으나 당시 플리머스 식민지 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퍼드(William Bradford)가 저서가운데 이들을 일컬어 '성도'란 말대신 '순례자'라고 한것을 1820년 독실한 기독교 정치가인 다니엘 웹스터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사용했던 것이 굳어진 이름이다.

원래 이 순례자들은 영국에서 극단적인 청교도 분리주의자(Puritan Separatists)들이었다. 부패한 영국국교(Anglican Church)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며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교회로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교회로 시작 되어야 된다고 믿는 소수의 부류였다. 청교도 지도자들이 대부분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공부한 엘리트들임에 비하면 비교적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 이었으며 이미 당시의 영국에서 박해가 무서워 화란으로 피난가 살았던 신교자들이었다. 청교도하면 플리머스에 도착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영국에 있던 대부분의 청교도들이나 나중에 보스턴에 건너와 마사추세스 식민지를 건설한 청교도들은 이들처럼 급진적인 신앙노선을 갖지않은 사람들이었다. 영국 국교가 잘못되었고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영국교에 머물면서 개혁을 이루고자 노력 했었다.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대륙으로 건너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나라와 교회를 건설하고자 한 분들은 바로 보스턴에 1630년대에 온 엘리트 청교도들이었다.

이 분리주의 순례자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일반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를 만들어 영국교회의 예배시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공포하자 이를 반대하면서 핍박이 무서워 이미 화란의 라이든(Leyden)에 피난갔던 사람들이었다.

거기에서 주로 배짜는 일들을 하며 살았으나 그동안 스페인과 맺은 평화협정이 끝나게 되자 화란(원래 스페인의 영토였으나 종교개혁으로 칼빈주의 신교들 때문에 영국의 힘을 입어 독립하게 되었음)이 스페인의 침범을 우려하여 영국과 정치적인 결탁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화란도 자기들의 피란처가 되지 못하니 신대륙에 희망을 걸고 배를 타게 된 것이다.

그들은 라이든에서 스피드웰(Speedwell)호를 타고 영국으로 가서 메이플러워(Mayflower) 호와 함께 뉴욕의 '허드슨 강변의 어떤 곳'을 가려 했었다. 그러나 스피드웰 호가 항해할 수 없어 메이플러워 호를 함께 타게 되었다. 이때 승선한 사람들은 다 청교도들이 아니었다. 102명 중 단지 35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항해중 자치규약(Compact)을 만들때는 41명이 싸인하게 되어 상당수가 신대륙에서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 65

이명길
동남아 선교사



일 만에 1620년 11월 지금 케이프 코드(Cape Cod)에 이르렀고 거기에는 인디안들이 백인을 죽인 흔적이 있어 내리지 못하고 더 안쪽으로 배를 몰아 지금의 플리머스에 12월 21일 도착했다. 일기와 인디안들의 위험성을 진단하면서 배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12월26일 플리머스 록(Plymouth Rock)에 첫 발을 디딘 것이다. 그들은 그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혹한과 당시 인디안을 휩쓸던 전염병때문에 태반을 잃었다. 그러나 다행히 영어를 할줄 아는 스쿠안토(Squanto: 인디안으로서 스페인 사람들에게 불잡혀가서 영국사람들을 만나 영어를 배운후 풀려나 돌아온 인디안임)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주선으로 주위의 마사추세츠(Massachussets: 지금의 마사추세츠 주 이름은 그 인디안족의 이름을 딴 것임)족 추장인 마사소잇(Massasoit)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듬해 유럽에서는 생소한 인디안 강냉이를 심어 농사를 시작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1921년 가을 (정확한 날짜는 기록이 없음) 첫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역사로 남긴 윌리엄 브래드포드(플리머스 식민지에 관하여 (Of Plymouth Plantation 1650-1647)라는 역사책을 남김)는 그해 여름동안 그들에게는 '굶주림이 없었고 가정마다 들새나 물새들을 잡아 겨울을 위해 충분히 저장할 수가 있었다'라고 쓰고 있다. 윈슬러(Edward Winslow)가 그해 12월11일 영국에 보낸 첫번 감사절에 관한 편지에 보면 '우리 지사가 네사람을 시켜 야생 칠면조를 잡아왔고 우리들의 노동으로 거둔 과일들을 모았는데 우리 동료들을 일주일을 먹일 만큼 충분했었다.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는데 인디안 왕 맛싸소잇은 90명의 인디안을 데리고 와서 함께 즐겼으며 그들은 나가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아와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축제는 그후 뉴잉글랜드 지역(코네티컷주 부터 위 동북쪽 6개주를 이렇게 부름)에서 부분적으로 지키던 것을 1862년 아브라함 링컨이 영방 공휴일로 선포하고 칠면조와 호박파이를 먹는 전통적인 날로 굳히게 되었으며 전통적으로 11월 맨 마지막 목요일 날을 지키던 것을 1941년 국회에서 11월 4번째 목요일로 바꾸게 된 것이다.

플리머스 순례자들은 미국에 두가지 큰 유산을 남겼다. 그 하나는 바로 추수감사절이요, 다른 하나는 최초의 민주주의의 귀감이 되는 자치규약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효시가 된 것이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간에 전통적으로 지키는 감사절이 있다(우리나라의 한가위등). 역사가 짧은 미국에 이런 전통을 세운것은 매우 중요한 것 이다. 추수감사절은 분명히 첫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이민의 날, 곧 이민자들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

한인사회소식

앨버커키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

앨버커키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협회(Greater Albuquerque Association of Realtors)는 앨버커키 메트로 지역 주택가격이 지난 8월 들어 상승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협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지난 8월 단독 주택 매매 건수는 1,071건이다. 작년과 같은 시기를 비교할 때 9.1%의 증가세다. 또한, 같은 기간에 96건의 타운 홈과 콘도가 매매됐는데 이는 전 해와 비교할 때 7.9%의 증가세를 보인다.

주택시장에 나온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숫자는 전년보다 16%나 감소했다고 협회가 발표했다.

매매된 주택가격의 중간 값은 \$190,000으로 전년보다 1.6% 오른 값이다. 중간 값이란 곧 매매된 주택의 절반은 중간 값보다 비싸고 그 나머지는 중간 값보다 낮게 거래 됐다는 것이다.

이 통계자료에 해당하는 지역은 앨버커키와 버날리요, 발렌치아, 토랜스 카운티와 소코로, 산타페 카운티의 일부이다.

주택이 시장에 나온 뒤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걸리는 기간 역시 변화가 크다. 단독 주택의 경우 평균 5일이 더 짧아졌고 콘도와 타운 홈의 경우는 23일이나 더 당겨졌다. 그만큼 주택이 빨리 팔린다는 얘기다. 여름철이 지나고 아직 이자율이 낮은 반면 월세가 상승하고 있어 주택시장은 계속 활기를 띌 것이라고 협회의 존 슈누어(Jon Schnoor) 회장은 내다봤다.

더 상세한 8월의 보고서를 알아보려면 GAAR.com 웹사이트에 들어가 시장 통계란을 참고하면 된다. ■

페이스북 -로수 루나스에 데이터센터 기공식

뉴멕시코 로스 루나스(Los Lunas)에 건설하기로 한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 기공식(Groundbreaking)이 10월11일 (화요일) 거행됐다. 수자나 마르티네즈 주지사와 레이첼 피터슨 페이스북 데이터센터 기획부장과 관계 대표자들이 함께한 킥오프(Kickoff) 첫 삽질로 데이터 센터 건축 공사가 시작하게 되었다. 공사를 맡은 회사는 폴티스건설 (Fortis Construction) 회사이며 첫 단계 공사에 2억 5천만불이 드는 투자규모는 1993년에 있었던 리오랜초의 인텔회사 확장으로 18억불 투자가 있었던 이후 뉴멕시코가 유지한 가장 큰 투자로 기록된다. 데이터센터의 가동은 2018년으로 잡고있으며 5개의 추가 건물 공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공사기간중에는 수백명의 고용효과가 있을것이며 공사를 마친후 데이터 센터가 운영될때에는 30-50명 직원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센터 공사장 위치는 I-25와 하이웨이 6번의 교차지점 근방이다. ■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임에 분명하다. 정든 고국을 등지고 신대륙에 와서 온갖 고통을 견디어낸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개척하여 얻은 결실에 감사하며 축하했던 승리의 날인 것이다.

또한 선거에 의해서 자기들의 통치자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일은 비단 소 그룹의 약정에 불과하나 왕의 절대권력에 의해 지사가 세워지고 왕의 대표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때에는 보기 어려운 결정이다. 왕의 명령 하나로 찰스왕 친구인 윌리엄 펜(펜실바니아주는 펜의 산림이란 뜻에서 온 것임)에게 자기땅도 아닌 인디안의 땅 펜실바니아주 전체를 줄 수 있었고 그것이 자기 소유라고 선언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되어지는 당시에는 하나의 이변이 아닐 수 없다. 통치자를 법 아래 두고 통치자를 뽑는 좋은 귀감이 되어 미국 헌법의 정신을 부여 해준 효시가 된 것이다.

매년 추수감사절을 당 할 때마다 안타까운 점이 없지않다. 첫째는 첫 감사절을 시작한 청교도들의 참 뜻을 잊어버리고 있는 점이며 둘째로는 미국사람들이 대부분 청교도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이다.

이제 추수 감사절은 청교도 정신 속에 세워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즐기며 노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날이 되면 미국은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각종 사업체들이 성탄 분위기를 조성하기에 바빠진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나돌기

시작하며 크리스마스 케롤이 등장하게 된다. 나무랄일은 아니나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것은 어찌하랴!

영국의 청교도들이 근대 역사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크다. 오늘의 민주주의가 그들의 유산이 아닌가? 미국의 삼권분립체제가 사무엘 러더퍼드(Samuel Rutherford)의 'Lex Rex'(법과 군주)를 존로크(John Lock)가 체계화한 것이 아닌가? 케임브리지의 밀턴, 뉴턴등이 청교도 후예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하면 그저 편협하고 지독한 도덕적 금욕주의자들이라하며 현대 젊은 성개방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중에 보스턴에 건너온 케임브리지 출신의 청교도들은 정말로 이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언덕위의 도시'를 건설할 꿈을 가지고 참된신앙을 찾아 이민을 왔었다. 그런데 마치 이땅의 조상들이 신앙은 둘째로 하고 자유만을 위하여 이 나라를 건설한 것처럼 알고 배우고 있으니 말이다.

이날이 되면 먼저 그들이 감사하던 하나님을 찾아 감사한 뜻을 새겨야 할 것이며 그들의 신앙으로 돌아가 그들이 꿈꾸던 꿈을 찾는 날이 되어야 할것이다. 신앙을 삶의 가장 첫자리에 놓은 순례자들을 그리면서 청교도들이 가졌던 '언덕위의 도시'(The City on the Hill)를 우리 한인 교포들도 꿈을 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주: 청교도들이 지향했던 '언덕위의 도시'는 마태복음 5:14의 예수의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



YELP가 선정한 뉴멕시코의 베스트 “아시안 페어” 식당

알버커키 다운타운에 있는 한국식당 “아시안페어(Asian Pear 대표:김은진 씨)”가 뉴멕시코의 베스트(Best) 식당으로 뽑혔다. USA Today가 식당 리뷰 사이트인 Yelp(옐프)에 DC를 포함한 전국 50개주 각 주에서 한 곳의 Best 식당을 소개해 줄 것을 의뢰했다. Yelp가 선정한 결과를 10월17일 USA Today가 발표했는데 뉴멕시코의 베스트는 “아시안 페어”가 된 것이다. “아시안페어”는 작년 1월12일 김은진씨가 다운타운 센트럴가에 (Kimo Theater에서 대각선으로 맞은 편) 새로 시작한 식당이다. 시작한지 2년이 안되는 짧은 비즈니스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정성껏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여 Yelp 이용자(Yelper)로부터 좋은 리뷰를 받아 온 결과 Yelp 선정, ‘뉴멕시코 베스트’란 정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김은진씨와 일문일답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힘든점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관리 그리고 집안일과 식당일을 병행해서 하는 일입니다. 보람은 아무래도 제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때와 저희 음식을 드시고 손님께서 한국에 관심을 보이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뉴멕시코에서 베스트란 영예를 얻게 된 비결은?〉

뉴멕시코에서 베스트로 선정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당운영 경험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한국에 계신분과 이곳에 계신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께서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경험이 많이부족해서 그분들 말씀을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메뉴를 보면 일본음식(돈까쓰, 벤토)과 한국음식(돼지불고기, 닭구이 BBQ, 불고기)이 있는데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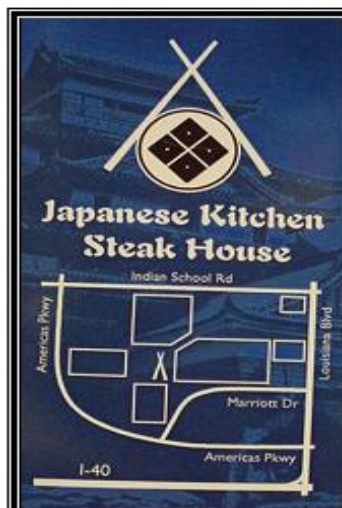
불고기와 바비큐 치킨을 들수 있습니다.

〈식당 경영을 하면서 가장 힘든점은 무엇이며, 보람을 느낀점은 어떤 것인가요?〉

〈광야의 소리 독자여러분과 나누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갑자기 알게된 일이라 기쁘기도하고 부끄럽기도하고 한편으론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많이 배워야 하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안페어 식당의 주소는 508 Central Ave. SW, Albuquerque. 영업시간은 월-목 10:00AM-4:00PM, 금 10:00AM-8:30PM이며 페이스북 (facebook.com/AsianPearAbq/)에서 관련 정보를 볼 수도 있다. 김은진씨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집사님이시며 남편 서혁상 집사(Osuna Nursery 매니저)와 두딸님 영유 (Joanne) 다정(Emily)이 가족이 되신다. ■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생활상식

허망한 욕심

야고보서 1장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들은 불로초 하면 옛날 진나라 진시왕을 생각하게 된다. 이 왕은 로마의 네로 왕 에 못지않게 악독무도한 왕이었다고 한다. 왕을 섬기는 많은 신하들은 진시왕이 빨리 죽기를 원했었는데 그 왕이 단명했으니 그들의 원대로 된셈이다. 그는 여러 인근나라들을 정복하고 큰 제국을 세웠다. 그뿐이 아니라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완성했다. 이 만리 장성은 외부의 침략을 저지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내부의 반란으로 제국은 무너졌다고 한다. 진시왕은 불로장생을 염원하며 불로초를 구하라고 우리나라 제주도로 신하를 보내기도 했고 전해진 말에 의하면 주치의의 들이 왕에게 수은을 처방했는데 그것의 소량을 섭취했더니 피부가 팽팽해지는 것을 보며 불로장생의 약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은 수은중독으로 50세에 사망했다는 것이다. 아 이 구 !!!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1 장 15 절 생각 나지요 ?

현대 영양학이 말해 주고 있지만 진시왕이 그렇게도 원했던 불로초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로 정교하게 창조했지만 불로초는 안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테 한국의 어떤 부자들은 인삼 녹용이 몸에 좋다고 해서 가끔 자기 어린자식들에게 인삼과 녹용을 달여 먹인다고 들었다. 그런데 한가지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다. 사슴들이 채수없게 방사능 (스토롬지움) 이 들어 있는 풀을 먹으면 그 방사능이 그 사슴뿔로 모인다고 한다. 그뿔을 달여 먹이면 큰 위험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스토롬지움 의 반감기 (섭취된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양) 가 무려 40 년이나 되므로 인체내에서 잘 빠져 나가지를 않아서 불치의 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조심해야지요. 이 방사능이 사슴뿔에 들어 있다는 것이 가이거 카운터로 판명된 것이다. 허망한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것이다.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그런데 요새 검은 마늘, 혹은 흑 마늘 (Black Garlic, BG) 이 미국에서 antioxidant 가 풍부한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알려 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생마늘이 가지고 있는 자극적이고 불쾌한 냄새가 익은 김치 냄새 보다 더 강해서 여러 미국분들을 외면 하게 만든다. 그러나 흑 마늘은 냄새도 없고 생마늘과 맛이 전연 달라서 맛이 쫄깃쫄깃하고 달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한번 맛을 들이면 끊을수 없는 매력이 있기도 하다. 우선 내가 시도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어떤 영양가가 흑마늘에 들어 있는지 찾아 보고자 한다.

먼저 인터넷에 보면 흑마늘 만드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다. 우리도 몇번 시도했는데 별로 나쁘지 않게 나왔다. 우선 내 방법을 말할것인데 어렵게 만들지 말고 만든것을 사서 드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것이다.

우리 한국 가정에 전기밥솥 (Rice cooker)없는 분은 없을것이다. 인터넷에서 흑마늘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니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발효시키는 기간이 너무 긴듯 하였다.어떤이는 온도며 습기등을 정확하게 재면서 만들고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않아도 간단하게 만들수가 있었다.

우리는 현 밥통을 뒷마당에다 두고 마늘을 전부 까지 말고 제일 밖에있는 껍질만 벗겨내고 속 껍질이 있는채로 밥통안에 스티머를넣은 위에 마늘들을 겹겹이 놓고 warm switch 를 on 하고 8 ~ 9일 동안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밥통안의 온도가 일정하게 140 도 F (약 60 도 C) 가 될것이라고 한다 나는 9 일이 다 되기전에 좀 안달이 나서 미리 밥통을 열고 한개 꺼내서 검사도 해 보았다. 흑 마늘이 된것을 알면 전기를 끄고 하루정도 마늘을 식힌다음에 나머지 껍질을 베끼고 말리니까 흑 마늘이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Sushi & Sake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되었던 것이다. 내방법이 최상의 방법은 아닐것이다. 혹시 내것과 다른 방법을 써서 만든 분은 그방법을 공개해도 좋을듯 싶다. 흑마늘의 영양가는 생마늘의 것과 비교가 안될정도로 좋다. 흑마늘에 있는 s-allylcysteine (SAC) 성분은 수용성이어서 몸에 흡수도 잘되고 생마늘 보다 많이 들어 있는데 콜레스테롤을 내려 주고 여러 암의 위험을 덜어준다고 한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SAC(mg/g)	Calcium(mg)	Phosphorus(mg)	Protein(g)
흑마늘	5.84	36.66	80	12.5
생마늘	0.32	5.0	40	2.2

그뿐만 아니라 흑마늘에 들어 있는 많은 Antioxidant (AO) 가 노화 방지 라던가 심장병이라던가 치매라던가 관절염 등 노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불치의 병들과 잘 싸워 준다는 보고가 있다. 이외에도 체력증강, 정력증강, 냉증개선, 강력한 살균작용, 해독작용, 고혈압개선, 소화촉진 등등 이루다 말할수 없을 정도이다.

옛날 진시왕이 허망한 욕심을 내서 세상에 없는 불로초를 찾지 말고 그 많았던 흑마늘을 한 두쪽씩 먹었다라면 중국역사는 또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한심한 사례는 세계 역사 속에서도 또 볼수 있다. 어떤 나라 왕이 건강한 청년의 피를 수혈 받으면 장수한다고 믿고 수혈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혈액형이 틀려서 단명했다는 것이다.

나는 흑마늘의 풍부한 영양가를 훑어 보면서 이것이 불로초는 아니지만 그 사춘쯤 ? 되지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어떤 분은 흑마늘만 몇쪽을 먹으면 위가 좀 거북해진다고 한다. 그런분들은 빈속에 흑마늘만 먹지 말고 Alkalizing food 와 함께 먹으면 좋을듯하다. 몇가지 Alkalizing food를 뽑아보면 Alfalfa grass, Endives, Soy sprout, Soy milk, Spinach, Avocado, Almond milk, Tomato, Tomato juice 등이다. 또 다른 방법은 식사후에 흑마늘을 드시라는 것이다.

한가지 조심해야 할것은 위장병이 있거나 위가 약한 사람은 흑마늘 먹는 양이나 방법을 주의해서 실험해 보시기 바란다. 한가지 더 언급한다면,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노화되는 과정에서 전립선 (prostate) 이 서서히 커지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건강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또는 전립선에 암세포가 발생해서 크게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예상치 않았던 전립선 문제를 미리 예방할수는 없을까요? 미국에 식이요법을 선호하는 이들이 인터넷에서 원하는 식품을 들어보면 참깨씨, 호박씨, 알몬드등에 Zinc 성분이 풍부한데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살몬이나 호두씨 두부등도 좋고 Bell pepper 도마도의 라이코핀도 전립선 암 발생을 지연시켜 준다고 한다. 이 라이코핀은 전에도 말했듯이 Anti oxidant 로 활성산소를 중화 시켜서 몸안에서 암덩어리가 판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면 된다. 여러분들 Store 에 가면 널려 있는것이 도마도 인것을 알수 있다. 이것을 살짝 익히면 라이코핀 양이 늘어나서 더 효능이 좋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 ■

심장마비의 전조증상



이태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심장 마비의 증상이라네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혈관 수축으로 인한 심장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 마비로 돌연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특히 추운 겨울철 조심하여야겠으며 심장마비 전조증상을 알아볼게요!!! 다른 때보다도 심하게 피곤함을 느낄 때는 심장질환을 의심해보아야 해요

심장마비 전조증상은 어지러움과 구토 같은 느낌의 증상과 극도로 피곤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네요! 호흡이 가빠져서 기침이 심해지고 열도 나고 평상시의 호흡이 곤란한 증상이 나타나요. 별다른 활동 없이 땀이 나고 혈색이 안 좋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심장마비 전조증상 중 하나인 독감 증상이 자주 발생하여 몸살과 같은 독감 증세가 나타나 곤해요

심장의 이상으로 인한 두근거림, 우울증, 불안감으로 인한 불면증 증세가 흔히 나타나곤 합니다.

심장마비 전조증상인 심장혈관의 이상으로 인한 흉통, 가슴 통증과 압박감이 자주 발생하게 되지요!

이상과 같은 심장마비 전조증상이 발생하면 심장 마비를 의심하시고 서둘러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 심장 마비로 인한 돌연사를 막아야 해요!!!!

갑작스런 심장마비란 없고 1시간이상 전조증상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는 대부분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며 쓰러지기 전에 최장1시간이상 갖가지 전조증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갑작스런 심(장)정지가 보기에 건강한 사람 또는

>>17쪽으로 계속>>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www.acupunctureherbspainclinic.com
보험 관련 광고사항 이곳에 !
2617 Juan Tabo NE #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에배소서 개요

로마 감옥에 매인 몸이면서도 3차 선교 여행중 자신이 세운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의 여러 교회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더욱 염려스러워 에배소 교회를 비롯하여, 또는 마지막으로 여러 교회 성도님이 돌려 보도록 쓴 회람 편지 (순회 편지) 가 에배소서이다.

소아시아 3대 도시중 예루살렘, 안디옥을 제치고 에배소가 소아시아 의 수도 였다. 거대한 아테비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신전을 비롯하여 대형 원형극장, 운동 경기장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스포츠를 즐기며 향락적인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차 선교여행 중 이 에배소에 약 3년간 머물면서 바울은 에배소 를 중심으로 하여 인근 소아시아 여러 곳에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창조주 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널리 알리였으며 큰 변화가 이 타락한 도시에 일어났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아 이 도시에는 다수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바울이 세운 에배소 교회에는 자연히 이들 유대인들의 기독교 개종자와 이방인들의 새로운 기독교 신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본서의 강조점이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목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연합 (상합) 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 옛사람, 옛 정결의식, 옛 장로의 유전, 옛 지적 권위의식 (이방인들의), 옛 성취감 등등 모든 옛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하라는 바울의 권고형 명령들을 보면 이들 두 부류의 과거 원수기간 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가 좋지않고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으나 바울도 이들 교회들과 성도들이 처음 믿을때 가졌던 사랑과 오직 예수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온갖 이단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 교회안에서 조차 다른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을 실족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 이들을 위해 기도하던중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에배소서를 썼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하여 분명한 구원론, 분명한 교회로, 교회가 일치 연합하여야 할 명제, 이웃과의 관계, 가정과 사회 생활에서 부딪치는 모든 문제, 그러지 않아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신자들의 구원의 길 (빌 2:12)에 필히 부딪치는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 에 대한 신자들의 걱정과 기도, 그리고

현용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



이러한 신자들의 교회 생활에 확신을 주자고 보증하는 성령님의 사역 등등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용한 마음으로 그 승리를 복기하는 심정으로 차분하게 쓴 교리서가 바로 이 에배소서이다.

다소 난해한 부분들에는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도 평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읽어내려 간다면 무조건적 은혜로 독생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임무를 부여 받은자 즉 여기서는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주신 임무) 로 이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임무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성취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사랑을 행여나 잃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내주 하시어 우리를 인도, 격려, 대신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길에 보혜사 가 되시는 주 성령님의 성결의 사랑앞에 조용히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에배소서는 모든 성도중의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 없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겸손한 바울이 썼지만 그가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감동 하심을 받아 쓴 결과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당당하고 승리감이 넘치는 서신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읽는 독자들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설만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마음으로 읽는다면 저자 바울이 느꼈던 그 승리감, 그 감사함을 함께 느낄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세상 만민을 죄악가운데서 구원하고, 모든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도록 계획하신 창세전의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목적은 1장 10 절에 명시되어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우주적 교회의 머리로 주심으로 모든 만물은 그 발아래 복종하며, 예수님께서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신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

노아의 때와 같이

마태복음 24:36-44

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마치 인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물질적으로는 제일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뉴스를 보면 아실 수 있는 것 처럼 매우 불행한 일들과 악한 일들이 마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동의 ISIS는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조종해 그들의 가상적 영토를 늘려가고 있고, 32살의 젊은 한국인 청년은 어느 나라의 왕이 되어 대다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살인무기를 만드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회 출석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포켓몬 고 나 총으로 살상하는 게임에 셀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도덕적 지도력을 잃은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 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신론이 팽배했던 동양적 세상관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이상할 것이 없지만 영어로는 godless world 입니다. Godless world 는 절망적일수밖에 없는 어떠한 디스토피아를 뜻하는 것이며 무질서와 무법 상태의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란 것이 어떤 것 입니까? 본문 말씀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창세기 6:5 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대 홍수를 내리셨습니까? 마음의 생각, 원함, 의도가 모두 다 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식은 많아졌겠지만 인간의 본성은 조금도 바뀌지

한승우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전도사

Programmer/Analyst

UNM Health Science Center



않았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7:16

바울이 아텐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전 약 500년 전에 황금기를 지낸 아텐은 바울이 왔을때 도덕적으로 바르고 사람의 인격을 중히 여기는 도시가 아니라 타락한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무슨 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상이라는 것 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50년 동안 갑자기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 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사악함은 세상의 표준적인 관행같이 되어 버린 것 입니다.

마태복음 24: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앓좋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빠집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정도로 나빠진다고 합니다. 꼭 해야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만큼이나 나쁜 것입니다. 불법이 만연하다는 것은 그냥 범죄만 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연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아후서 2:9-11에서 바울은 불법의 표본적 인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흥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어느 시점에서 능력을 가지고 이 “악한 자”가 나타나서 표적과 거짓 기적을 보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것 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된다고 합니다. 행해지는 규모는 엄청날 것 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지금도 참 앓아눕고 있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죄악이 만연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악의 능력이 세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더 셉니다. 교회의 쇠퇴에 대해 사실 보고서를 듣고 통계를 접하면 마음이 찡찡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18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우주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죄악이 만연할 것을 이야기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훼방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소망을 잃지 마세요

학교에서, 일터에서, 티비에서, 정치에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방치만 하면 안되겠죠. 의를 위해 담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을 지켜야 되고,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분을 터트리거나, 낙담되거나, 좌절하거나 공황상태로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끝날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14쪽에서>> 심장마비의 전조현상 (계속)

위험이 낮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는 종전의 이론과는 대치되는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대학 의과대학의 디르크 뮐러 박사는 미국심장학회(AHA)학술지 '순환(Circulation)'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급성심(장)정지 환자 40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75%가 쓰러지기 전 최소한 5분에서 120분까지 여러 전조증상이 나타났으며 50% 이상이 심장병 병력이 있었고 나머지는 당뇨병, 흡연, 만성폐질환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이 대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조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25%에 불과했다고 뮐러 박사는 말했습니다.

전조증상을 유형별로 보면 협심증에 의한 흉통 120분(22%), 호흡곤란 30분(15%), 오심 또는 구토증세 120분(7%), 현기증 10분(5%), 기타 증상 60분(8%)전에 나타났다. 뮐러 박사는 이러한 전조증상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주위에 있던 사람이 잘못 해석하거나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전조증상들을 일반인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뮐러 박사는 또 급성심(장)정지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을 때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심폐소생술(CPR)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는 가운데 자택에서 쓰러졌으며 이 경우 심폐소생술이 시행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발생한 환자에서 23%가 살아났고 이를 받지 못한 349명은 4%만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

것이라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고 오셔서 승리하시고 다스리실 왕의 왕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한다면 오실 왕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표징입니다.

뉴스를 봐도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더 나빠질 것 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승리의 진행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이며,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시며 마지막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f.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Yong Shin Kim
Associate Broker / REALTOR®
Fluent in English & Korean
Cell: (505) 321-7695
Email: yongfre@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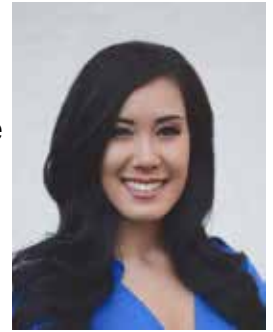
6739 Academy Rd. NE, Suite 200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888-1700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New Mexico Properties

A member of the franchise system of BHH Affiliates, LLC. Equal Housing Opportunity.

Overcoming Adversity

Jenny Lee



Hapa is a Hawaiian pidgin word to describe mixed-race people, primarily those who are half White and half Asian. This Hawaiian word that more literally means “half” originated as a derogatory term towards mixed children of plantation guest workers from the Philippines, Korea, China and Japan. Asian Americans have had a longstanding history of discrimination that is not only limited to the Hawaiian region. Growing up, I was called derogative Asian slurs by others. At first this caused me great pain, but with time, maturity and wisdom I have come to embrace my “hapa” identity and draw strength from it.

In 1990, my paternal grandparents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from Sweden, seeking the “American Dream.” This dream was also the driving force behind my mother’s immigration from South Korea. My light haired, blue eyed Swedish father and my beautiful Korean mother with slanted eyes and high cheekbones resulted in more than just a difference in my physical traits but led to an extreme difference of culture wherein I struggled greatly in trying to find my own identity. Growing up I was always one of the few, if not the only, Asians in my class and because of this I felt inclined to resist and even reject my Asian features and force myself to identify with my Caucasian classmates. The fact that I looked different made me feel inferior to everyone else and as a child I did everything I could to act more “White.” I refused to learn Korean and resented my mother for making me go to Korean church and language school every Sunday. I would even turn down her kimchi, Korea’s quintessential food, and never ate anything that even looked like it could be spicy. I did everything I could to fit in with the majority and rejecting my Korean culture was my way of trying to embrace my “White”, and Sweden heritage. It was my way of assimilating to the world around me where I desperately sought to belong.

My struggle with identity was also affected by my father’s career in the military. As I was trying to figure out my place and what group I could identify with, my life was abruptly disturbed by constant relocations when my Father received new duty assignments. My family had to move every couple of years to another military station and no matter how hard I tried to feel a sense of belonging, it never seemed possible. I always felt like an outsider – unwelcome and alone as the minority within a new and shifting majority.

In 1999, my self-perception changed when my Father was assigned to Kirtland Air Force Base and I moved to Albuquerque, New Mexico.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experienced a culture which embraced diversity. In Albuquerque, minority ethnic groups – Native Americans, Hispanics, and African Americans – represented the greater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nd were thriving in business, education and politics. My day-to-day activities, like going to school or even the grocery store were welcomed by faces that made me feel comfortable in

my own skin. My outward surrounding emboldened me to make my own inner change and to accept my slanted eyes, black hair and yellowish skin. Within a short time I even embraced attending Korean language school and church.

Throughout my many moves as a military brat, I had desperately sought a sense of belonging. Finally, I had found friendship and community here in the Land of Enchantment. As a result I have remained a resident these past fifteen years. My experiences living abroad and in other states gave me perspective and imbued me with a deep and lasting love for New Mexico. Here I found my identity as an Asian America, and as a New Mexican.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I chose to earn my undergraduate degree at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I excelled academically and pursued and developed my interest in public polic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 took many criminal and law based classes during my undergraduate years at UNM, but what struck me most was when I was in my senior year. I enrolled in a Constitutional Law class with Peter Kierst and his course was one of the hardest yet interesting classes I ever experienced. His class and great teaching exposed me to the careful balance required in a free society to both ensure public safety and protect the rights of citizens. This was the focus on our final project that had a huge emphasis on the Fourteenth Amendment. We had to solve two hypothetical scenarios and take a stance on the issues using both knowledge of the law and past Supreme Court decisions. The many various ways to solve the case were what interested me to become a lawyer because the law is all the same, it is the fine line in how you interpret the law in or against your favor that can make or break your case.

My undergraduate education in Criminology and subsequently being certified as a paralegal have laid the foundations needed to accomplish my desire to pursue a career as an attorney. In the fall of 2014, I completed a semester long dual credit internship with the Bernalillo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I was assigned to the Felony Gangs Division and had the opportunity to support high-stakes prosecutions of some of Albuquerque’s most violent criminals and repeat offenders. I went to work everyday with a desire to fight for justice both for the community and for the victims of these violent crimes that I had come to know through my day-to-day work. During my time with the Office, I was able to work on several cases through all the phases of the process - from indictment, through trial preparation, and up to sentencing. Despite their low pay and large caseloads, the prosecutors I worked for all approached each day’s work with a clear sense of purpose and resolve, determined to make a difference and be a voice for the people. My experience with the DA’s Office exposed me to the day-to-day work of legal

practice and I came away more determined than ever to pursue a legal education.
After graduating from UNM in May 2015, I earned my paralegal certificate and began working for a dynamic small law firm in Albuquerque. As a paralegal, I interact with the firm's clients, people who are often struggling through a divorce or attempting to deal with the impact of serious injuries or the unexpected death of a loved one. As I work with them, I reflect on my own childhood experiences of hopelessness and vulnerability, and use my experiences as fuel to offer kindness and compassion for my firm's clients.

Currently, I am a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School of Law which is a highly rated university placing in the top 50 among the country. As a national leader in

diversity, UNM has aligned with my personal desire to study law alongside classmates with diverse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s. Overcoming my own personal adversities is the driving force behind my passion to serve and fight against injustices for the people of our great state, and is my motivation to excel and succeed through law school. After graduating law school, my goal is to become an attorney so that I can be an advocate for the vulnerable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and help them navigate the legal system during the most difficult periods of their lives. My gift of heritage has always been important, and has ultimately shaped me into the person I am and will be as an attorney. "Crescit eundo," - grows as it goes - is a reflection of my own life and growth as a proud Korean American.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교회안내는 Public Domain에서 수집된 자료입니다.
틀린점이 발견되면 편집부로 E-mail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gbjjyo@hotmail.com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 (626)272-1042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1:15 p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신동완 파우스티노 사목회장
장재준 안드레아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순복음교회

이 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olly St. Clovis, NM 88101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버커키 Albuquerque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주택용자 Loan Officer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부동산 Realtors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건축/페인트 Painting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치과 Dental Clinic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공인회계사 CPA	세탁소 Dry Cleaners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리커스토어 Liquors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태권도 TaeKwonDo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의류 Clothes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한의사 Acupuncture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종교 Church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화랑 Gallery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764-1900)

회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Photo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780 Camino Del Rex,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505)-269-0691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츨렬: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Bernalillo/Belen/ Bosque Farm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산타페 Santa Fe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412-5420
www.santafekorean.org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1
387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2244

Kelly Liquors #2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s #3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887507
(505) 471-3206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T-Mart
320 B West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1508 Thornto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
453-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편집후기

이번호는 원고가 풍성하게 많이 들어와서 이번호에
실지 못하고 다음호로 넘겨야되는 원고도 있게 되어
집필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고가 많아진 것은 뉴멕시코 한인사회가 보다 더
활발해진 좋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니
양의 에세이를 통해 자녀를 둔 부모들께서는 자녀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의 계절 11월과 성탄의 계절 12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계절이 되길
기원합니다.

편집위원장 이경화 voiceofnm@gmail.com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2016년 11/12월호

발행일: 2016.11.1.

발행인: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는 페이스북과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보실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voiceofnm/

웹사이트: voiceofnm.kumcabq.com

The Garage AUTO REPAIR

**'앨버커키에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 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모든 종류의 차량 정비 **최고의 실력을 가진 기술진**

일반 승용차에서부터 디젤 트럭까지 30년 경험의 마이크 조와 10명의 전문 기술진
고품질 부품만을 사용하여 믿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정비

Fleet Services



무료 견인/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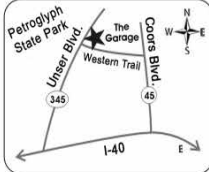


고객만족서비스



ASE Certified Master Technician
각 분야별 전문가
(전기, 유압, 차, 일본 차 등)

- AAA 지정 서비스 업체
- AC 델코 프로페셔널 서비스 업체
- 뉴멕시코주 버널리오 카운티
앨버커키시 차량 정비 업소



문의사항 (505) 352-5152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근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7시 ~ 오후 6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 근무외 시간에 차량을 맡기실 경우,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두고 열쇠함에 열쇠를 넣어주세요.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NAMI ROYBAL

한국성명: 류정남
TAX SPECIALIST 2



8201 Golf Course Rd NW
Ste F-2
Albuquerque, NM 87120
Office: 505.792.0997
Cell: 505.220.9372
Fax: 505.792.7871
nami.roybal@tax.hrblock.com

AVAILABLE YEAR-ROUND
BY APPOINTMENT
HRBLOCK.COM

**세금보고를
해 드립니다**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앨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Lunch
11:30-2:30 Mon-Sat

Dinner
4:30-9:30 Mon-Thur
11:30-10:00 Fri, Sat
4:00-9:00 Sun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 삼선짬뽕
해물탕면 / 다섯가지 냉채
관동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탕수우육 / 양장피 잡채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